

- 8 고려는 북쪽 국경선에 천리장성을 쌓아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였습니다.
- 9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물리친 후 차지한 땅에 9개의 성(동북 9성)을 쌓았습니다.
- 10 몽골이 세운 원은 세계 제국을 건설하여 많은 나라를 직접 지배하였고, 고려를 침략하여 정치에 간섭하였습니다.
- 11 몽골의 1차 침략 후 무신 정권은 도읍을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기고 몽골과 싸울 준비를 하였습니다.
- 12 고려는 몽골과의 오랜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해지고, 초조대장경과 황룡사 구층 목탑 등의 문화재가 불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.
- 13 고려는 몽골과 화친을 맺고 몽골의 요구대로 도읍을 다시 개경으로 옮겼지만, 삼별초는 근거지를 강화도에서 남쪽으로 옮기면서 끝까지 항쟁하였습니다.
- 14 원은 고려에 그들의 관청을 설치하고 고려의 왕자를 인질로 삼아 원으로 데려가는 등 고려의 정치에 간섭하였습니다.
- 15 공민왕은 원이 빼앗은 고려의 땅을 되찾아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.

실력 문제

82~83쪽

- | | | |
|-------|-------|--------|
| 1 ② | 2 (다) | 3 ⑤ |
| 4 ④ | 5 ⑤ | 6 ③ |
| 7 강화도 | 8 ⑤ | 9 ②, ④ |
| 10 ⑤ | 11 ② | |

12 예 고려는 건국 초부터 북진 정책을 추진하여 거란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. /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후에 고려는 거란을 더욱 적대하였기 때문이다.

13 예 서희는 국제 정세에 밝아 거란, 송, 여진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.

14 예 강화도는 해안의 지형이 험해서 적이 접근하기가 어렵고, 도읍인 개경이 가까워서 방어하기에 좋은 군사적 요새였기 때문이다.

- 1 거란의 1차 침입은 서희, 2차 침입은 양규, 3차 침입은 강감찬이 막아 냈습니다.
- 2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는 거란 장수 소손녕과 담판을 벌여 강동 6주를 획득하였습니다.
- 3 강감찬은 전세가 불리해져 후퇴하는 거란군을 추격하여 귀주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, 이를 귀주 대첩이라고 합니다.
- 4 거란을 물리친 고려는 압록강에서 동해안까지 천리장성을 쌓아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였습니다.
- 5 여진이 세력을 넓혀 국경을 자주 위협하자,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물리쳤습니다.
- 6 「척경입비도」는 윤관이 여진을 물리친 뒤 9성을 쌓고, 「고리지경」이라고 새긴 비석을 세워 국경선을 표시한 일을 조선 후기에 그린 것입니다.
- 7 강화도는 해안의 지형이 험해서 적이 접근하기가 어렵고, 도읍인 개경에 가까워서 방어하기에 좋은 군사적 요새였습니다.
- 8 몽골의 2차 침략 때 고려 백성들은 처인성에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.
- 9 삼별초를 이끌던 배중손이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게 패한 뒤 죽자, 김통정이 삼별초를 이끌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대몽 항쟁을 지속하였습니다.
- 10 고려 왕실은 개경으로 돌아갔지만 삼별초는 끝까지 싸웠습니다.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진도로, 진도에서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항쟁하였으나 결국 진압되었습니다.
- 11 공민왕은 당시 유행하던 몽골식 옷이나 머리 모양 등의 풍습을 버리고 고려의 전통을 되살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.

12 채점 기준

「고려의 북진 정책으로 거란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.」, 「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후 고려와 관계가 더욱 나빠졌다.」 등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바르게 썼다.

고려가 거란에게 선물 받은 낙타를 굶겨 죽인 만부교 사건을 계기로 양국의 관계가 끊어졌고, 이후 고려가 송과 교류하자 거란은 고려를 침략하였습니다.